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입례 /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 예수님 그의 회생 기억할 때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 비 준비하시니	다같이
대표기도		최효은
*성경봉독	시 1:1~6	한동우
말씀	복 있는 사람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복 있는 사람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김태동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와 의 올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모든 일이 잘 다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 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복 있는 사람 (시 1:1~6)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 의 올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올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다

시편1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많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받는 참 아름답고 귀한 시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젊은 나이에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시편1편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지 묵상하는 의미있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가장 먼저 악을 떠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1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점층적으로 악으로 치닫는 모습을 잘 나타내 줍니다. 죄를 따르는 길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미혹되다가 결국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자리에 주저 앉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시편은 분명히 악인들에게도 꾀가 있고, 죄인들이 가는 길도 따로 있으며, 오만한 자가 앉는 자리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여호와와 의 올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이 즐거워지면 세상이 말하는 꾀나 지혜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묵상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율조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묵상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그 순서는 복받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물과 햇빛을 통해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생명력을 유지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열매 맺을 때가 되었을 때 맺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열매 맺기 위한 기다림도 있고, 험곳은 날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때가 되면 어김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형통과 성공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처한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철을 따라 선한 열매들을 맺는 삶이 곧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이제 시편기자는 반대로 악인을 묘사하는 데,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합니다. (4절) 겨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냇가에 있으면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고, 뿌리가 없으면 말라버린 겨가 됩니다. 시편 1편의 시냇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말씀(logos)을 상징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율법을 율조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느냐가 시냇가의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존재와 생명에 관한 기반을 닦아줍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깨달은 자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삶과 가치관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줍니다. 겨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이리 저리 흩날리는 존재가 됩니다. 마치 유행 따라 이리 저리 움직이는 세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겨가 더 형통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영안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산책

겨와 생명 나무가 확연히 구분되는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5절) 심판 때에는 생명력이 없는 겨들은 사그러 들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겨도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심판 이전까지는 세상에 알곡과 함께 가라지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오직 의인의 길뿐입니다. (6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반대로, 주께서 카운트하지 않는 삶을 살면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때는 후회해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눅16장)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시편 1편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은 의미있는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죄를 떠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가장 훌륭한 시냇가의 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 분의 가지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요, 신구약이 공통으로 말하는 복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1.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삶에 대한 description과 내가 평소 생각한 복된 삶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2. 나는 바람에 나는 겨의 모습을 보며 형통한 것으로 오해한 적은 없나요? 어떻게 하면 겨와 생명 나무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3.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나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뭔가요?
4. 내가 포도나무되신 주님께 붙어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팀원 모집

- 라이트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김윤환)
- 찬양팀 - 여 성어, 건반, 일렉 기타, 드럼 (문의: 전하영)
-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 미디어팀 - 주보 편집에 관심 있으신 분 (문의: 안혜성)



찬양팀 신청 QR



예배팀 신청 QR

Outreach 사역

- 매월 1회 진행하는 아웃리치를 어제(11/11) 딥도넛 전도활동으로 감사히 마쳤습니다.
- 12월은 12/2(토)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있으신 청년들은 재인형제님께 연락바랍니다.

AKPC Thanksgiving Food Drive

- Collecting canned good: Nov 17까지 (예배당 앞 목장별 box에)
- Give thanks and give to the community in need: Nov 19 (주일, 목장참여 권면)
- We need : Canned food, Non perishable food, Boxed food, Cash/Gift Card donations

Bridge & Emmanuel Worship 모임

- 11/17(금) 6:30pm, 교회 놀이터 (우천시 친교실)
- 이번주는 캠퍼스 학생들을 초청하여 금요 워십팀과 함께 예배할 예정입니다. 캠프하이어도 진행됩니다.
-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와 호스팅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은 6:30까지 오시면 식사 제공됩니다. (예배시작: 8시)

추수 감사 예배

- 11월 19일 (주일) - 예배 전 (12-1시) 추수 감사 만찬이 있습니다.
- 청년부실에서 픽업해서 식사하시면 되고, 가급적 목장별, 팀별로 식사하시길 권면합니다.

입교

- 최조나단

주일 3부 예배 신설 및 예배시간 변경

- 2024년 3월 3일부터 주일 3부 예배가 신설되면서 예배시간이 변경됩니다.
- 1부 : 8시, 2부:10시, 3부:12시
- EM : 10시, 다음세대 : 10시, 청년부 : 오후 2시

도서부

- 교회 도서부에서 도서 정리중입니다. 잉여 도서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break

- 11/22(수)~25(토) 기간동안 교회 건물을 Close 합니다.
- 굿모닝 말씀산책, 토요 무릎기도회 쉽니다.

AKPC 2023 Christmas Banquet

- 12/10 주일 예배 후
- 성탄축하무대 싸인업
- 성탄축하무대 예시 (노래, 악기, 춤, 시, 수화, skit 등등...)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AKPC PSALM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라이드팀장	김윤환	michaelsdogani@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PSALM AKPC
 INSTAGRAM | @PSALM_AKPC

